

신화전자(주)



종합방재시스템 전문업체

1970년 10월 이화전자(주)로 설립하여 1980년 2월에 상호를 변경한 종업원 150명의 중견전자업체 신화전자(주)는 자동화재 탐지시스템의 생산, 개발, 시공업체로서 현재 종합방재시스템분야의 선두주자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노력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

이 회사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국내 최대의 프로젝트이며 최첨단기술의 집합체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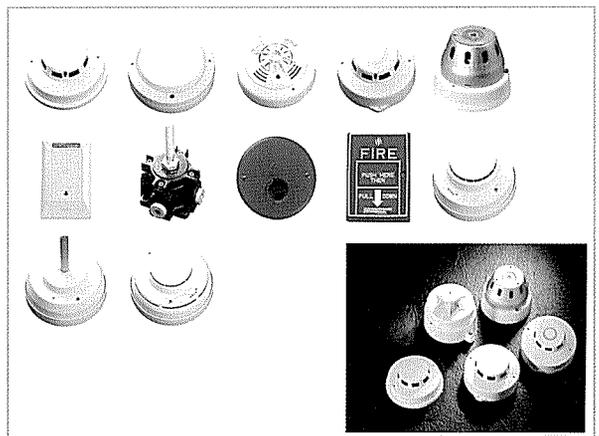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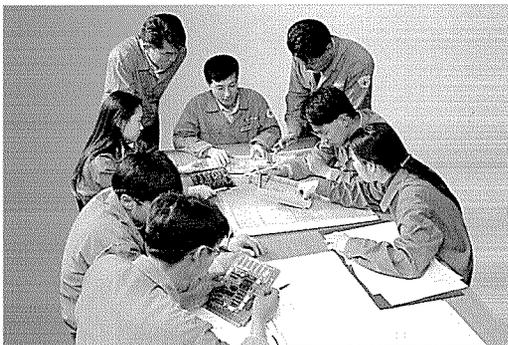


- 대표 : 김영경
- 주소 : 인천시 남구 도화동 756
TEL : 032)872-0119
FAX : 032)864-0297
- 주요생산품목 : 자동화재탐지수신기, 자동화재증계기, 자동화재감지기, 자동화재유도등, 기타 소방기기류

천국제공항의 방재시스템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어 그 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능을 갖춘 종합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김영경 사장은 「비전과 신념을 가진 자만이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아 존재하고 발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념이란 어떠한 동기에 실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알맞은 교육/훈련과 이러한 지식으로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 직장과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자신의 의지와 가치관에 달린것」이라며 ‘비전’과



'신념'에 대한 그의 경영 철학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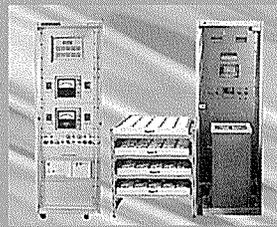
김사장의 올해 경영방침은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로 정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 회사구성원 모두에게 새로운 의식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김사장의 이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신화전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신화전자는 21세기에는 국내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연구개발 및 기

초정일형 광전식감지기개발, 국내최초 집합/분산식 대용량(32,000회선급)R형 개발 등 수많은 연구개발실적으로 우리나라 자동방재시스템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이 회사가 직면한 과제로는 전세계적인이 이용하게 될 인천국제공항 종합방재시스템을 최상의 방재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제품과 시스템이 선진국의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점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인력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술개발 박차를 가해 선진국의 제품과 가격경쟁에서 만이 아니라 기능과 신뢰성 면에서도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식을 갖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신화는 그동안 임직원 모두의 각고의 노력으로 국내최초 반복사용 발신기 보호판개발,

마지막으로 신화전자 김영경 사장은 정부 및 전자진흥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판로, 구매, 자금, 기술, 연구개발기획)과 기업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펴 기업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면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